

전남 소프트테니스팀들, 시즌 첫 대회부터 '승전고'

순창서 열린 제42회 회장기대회서 순천여고 금1개 은1개 동2개...순천대·순천시청·전남도청도 메달



전남 소프트테니스팀들이 올 시즌 첫 대회인 회장기대회에서 나란히 입상하며 올 시즌 전향을 밝혔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팀이 여고부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 순천대학교가 남대부 동 2개, 남일부 순천시청과 여일부 전남도청이 각각 동 1개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개 대회에 출전해 전종별을 석권한 순천여고는 이번 대회 개인단식에 출전한 4명의 선수가 모두 입



상하며 올해도 유감없이 여고부 최강의 면모를 발휘했다. 여고부 개인단식 준결승에서 출전한 4명이 모두 만난 순천여고는 준결승 1경기에서 신희선(2년)이 김여빈(2년)을, 강주현(2년)이 김가현(3년)을 각각 4: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신희선이 강주현을 4:1로 누르며 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은메달과 동메달 2개를 순천여고에서 모두 목에 거는 기쁨을 토했다. 남대부 순천대학교는 개인단식에 출전한 배이수(2년)가 최성림(대전대 4년)에게 아쉽게 1:4로 패했고, 남대

부 단체전에서 인하대학교에 0:2로 패하며 동메달 2개를 만조했다.

지난해 순천여고의 전성기를 이끌며 올해 전남도청에 입단한 박빛나·김운진 조는 여일부 개인복식 준결승에서 국가대표 문혜경-백설(NH농협) 조에 0:4로 패했고, 남일부 순천시청은 단체전 준결승에서 달성군청에 0:2로 패하며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이문재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 전남의 팀들이 서로 응원하며, 전남 대표라는 자긍심 아래 최선을 다 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재무 회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소프트테니스팀들이 올 시즌 첫 대회부터 승전고를 울려 대단히 기쁘다"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 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올해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전남 소프트테니스의 자긍심을 드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손흥민, 결국 한일전 제외

주세종·임원상도 불참...반쪽대결 불가피

한국 축구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이 결국 부상으로 한일전에 참가하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1일 "손흥민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한일전 소집 명단에 제외됐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아스날과의 복련던 더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교체된 이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고 있다.

당초 토트넘으로부터 차출에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던 협회는 부상 후 회복의 끝에 부르지 않기로 했다. 최초 소집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소속팀에서 뛸 수 없다"며 대표팀에서도 뛰는 건 어렵다"며 다친 손흥민을 부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 손흥민에 앞서 유럽파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 불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보르도)는 구단 방침에 따라 제외됐고, 소속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재성(울산유나이티드)도 명단에 빠졌다.

황희찬(라이프치히)은 소집 명단에 올랐다가 독일 작센주 보건 당국의 격리 규정에 따라 차출이 불발됐다.

이밖에도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김민재(베이징궈안), 손준호(산둥루닝)가 소속팀 조치에 따라 합류하지 못했다.

손흥민과 함께 이날 주세종(강화 FC), 임원상(광주)도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 내측 인대 부상으로 불참이 확정돼 1진이 대거 빠진 반쪽짜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손흥민, 임원상, 주세종을 대신해 조재환(강원), 이진현(대전), 김인성(울산)을 대체 발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일정이 6월로 연기되면서 일본축구협회의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그러나 양국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축들이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김이 빠진 것이 있다.

A매치를 갖는 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멕시코에 2-3으로 졌고, 카타르에 2-1로 승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 어수선했던 원정 평가전이다.

협회 의무분과위원회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날 '매일 코로나19 검사', '각자 식사'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알렸다.

협회 의무위원회와 국가대표 운영팀이 발간한 방역지침서를 토대로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개최지 일본의 최근 방역 지침을 참고해 만들었다.

통산 80번째 한일전은 25일 오후 7시 20분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일본축구협회는 방역 지침 속에서 유관중으로 한일전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최대 수용 인원은 5000명이다.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79전 42승 23무 14패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일본 원정에서도 30전 16승 8무 6패로 앞선다.

뉴스

“브룩스와 다른 스타일” KIA 멧덴, 메이저리그 17승 커리어 증명

첫 실전서 4이닝 무실점 4탈삼진...구중 모두 점점 윌리엄스 감독 “베테랑...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

KIA 원투펀치가 순항할까? KIA 타이거즈 다니엘 멧덴(28)이 이목이 집중된 첫 실전을 무난하게 소화했다. 지난 18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이닝을 4탈삼진을 곁들여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 투심, 커브, 커터, 체인지업 등 갖고 있는 구종을 모두 점점했다. 1회는 2루타를 맞고 볼넷도 허용했다. 볼도 마운드도 다른 환경에서 첫 실전에 따른

적응시간이었다. 곧바로 공격모드로 전환하더니 KT 중심타자 강백호와 조일로 앞문테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실점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3이닝은 산발 2안타로 막고 영의 행진을 이어갔다.

51개를 던지며 최고 구속 147km를 찍었다. 직구는 평균 145km가 되지 않더라도 힘이 있었다. 볼에 힘을 싣는 투구폼이었다. 낮게 낮게 들어가는 제구가 돋보였다. 변화구와 직구를 적절하게 섞으며 공격적인 투구가 빛을 발했다.



특히 경기전 윌리엄스 감독이 설명한대로 브룩스와는 다른 유형의 투수라는 점이 확인됐다. “브룩스는 위아래로 떨어지는 투구가 많지만 멧덴은 다양한 구종으로 승부한다. 싱커, 포심, 커터, 체인지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구속은 체크하

지 않겠다. 너무 많이 봤던 선수이다. 컨디션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보다는 마운드에서 스트라이크존 공력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었고 결과도 좋았다.

구속이 100%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구종과 볼끝의 힘으로 KT 타자들을 잠재웠다. 스피드가 떨어졌지만 147km까지 찍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개막에 맞춰 슬로우 조정을 해왔다. 정규리그 개막까지는 보름이 남았다. 충분히 구속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멧덴은 2016년부터 5년동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고 통산 17승, ERA 4.64를 기록했다. 양현종이 빠진 가운데 브룩스와 멧덴의 원투펀치의 비중은 훨씬 커졌다. 멧덴이 첫 무대에서 ML 17승 커리어를 입증하면서 활약에 파란불을 켰다.

美 언론 “양현종, 메이저리그 진입 쉽지 않을 것”

텍사스 구단 스프링캠프 기사...선발 3명 제외 8명 투수와 경쟁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메이저리그 개막전 로스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2일(한국시간) 텍사스 구단의 스프링캠프 기사를 실었다.

매체는 양현종의 투구 내용에 좋은 평가를 했지만, 메이저리그 로스터 진입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텍사스는 카일 김슨, 아리하라 고헤이, 마이크 폴터네비치 등 사실상 3명의 선발진을 구성한 가운데 나머지 선발 자원을 찾고 있다.

양현종은 시범경기에서의 호투, 좌완투수의 이점, KBO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선발 또는 볼펜 보직을 위해 양현종, 폴버 알라드, 카일 코디, 조던

라일스 등 8명의 투수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양현종은 올해 시범경기 3게임에 출전해 6이닝 6피안타(1회홈런) 8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SI는 “마이너 계약을 한 선수들이 좋은 피칭을 하고 있어서 텍사스에 좋은 일이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류현진, NYY전 대신 연습경기 5이닝 5K 무실점

4월2일 양키스와 개막전 등판 유력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이 연습경기에서 컨디션을 조절했다. 22일(한국시간) MLB닷컴 등 현지 매체들은 류현진이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의 토론토 스프링캠프 시설에서 팀의 시뮬레이션 경기에 등판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안타 3개와 볼넷 1개를 허용하면서 삼진 5개를 솟아냈다. 투구 수는 77개.

이날 토론토는 뉴욕 양키스와 시범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류현진은 시범 경기가 아닌 연습경기를 택했다.

정규시즌 19연의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같은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소속 양키스를 상대로 굳이 전력을 노출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2021시즌 개막전도 토론토-양키스의 매치업이다. 토론토는 아직 개막전 선발 투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에이스’ 류현진의 등판이 유력하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개막전에 맞춰 페이스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앞서 시범경기에도 두 차례 등판해 6이닝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시즌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펜싱 여자 에페 최인정, 카잔월드컵 우승

강영미 3위 동메달

펜싱 여자 에페 최인정(계통시청)이 카잔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인정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에페 월드컵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알리아 루티(프랑스)를 15-9로 제압했다.

이로써 최인정은 지난 2019년 5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대회 이후 개인 통산 두 번째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또 이번 대회 우승으로 여자 에페 세계랭킹 2위로 도약했다.



4강에서 루티에게 진 강영미(광주광역시 서구)는 동메달을 땀다.

강영미는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월드컵 동메달 이후 1년여 만에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부에선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이 10위를 기록했다.

클로이 김,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우승 차지

미국 교포 클로이 김(21)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우승을 차지했다.

클로이 김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에스펜에서 열린 2020-2021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50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예선에서 93.25점을 얻어 전체 1위로 결선 무대를 밟은 클로이 김은 금메달 수확에 성공했다. 86.00점을 받은 케랄트 카스텔레(스페인)가 2위에 자리했고, 도미타 세나(일본)가 82.50점으로 동메달을 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2019년 2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발목 부상으로 2018-2019시즌을 접었다.

이후 2020-2021시즌 복귀, 두 차례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며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클로이 김은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으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태어났으며 4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 세계적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다.